

# 두 개의 미국\*

-오키나와 아메리칸 빌리지를 둘러싼 표상 정치-

조 정 민\*\*

jungjung21kr@naver.com

## 〈 目 次 〉

- |                        |                       |
|------------------------|-----------------------|
| 1. 국도 58호, 문화적 양극성의 경계 | 4. 또 다른 아메리칸 빌리지      |
| 2. 상상된 미국              | -오시로 다쓰히로『카테일·파티』     |
| 3. 기표와 기의의 분리          | 5. 공간 재현과 재현 공간, 그 사이 |

Key word : 오키나와(Okinawa), 아메리칸 빌리지(American village), 미군기지 (American military base), 혼종성(Hybridity), 문화 정체성(Cultural Identity)

## 1. 국도 58호, 문화적 양극성의 경계

가고시마현(鹿児島県) 가고시마시(鹿児島市)부터 시작되어 오키나와현(沖縄県) 나하시(那覇市)에 이르는 국도 58호는 천혜의 자연 환경과 미군기지로 대변되는 오키나와를 한꺼번에 눈에 담을 수 있는 도로이다. 바다와 하늘이 어우러진 서부 해안선의 광경은 사람들이 오키나와를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잘 설명해 주며, 반대편에 드문드문 나타나는 그러나 광대하게 펼쳐지는 미군기지의 철조망 펜스는 ‘전후 제로 년’의 오키나와의 실상을 실감하게 만들어 준다.

실제로 국도 58호는 미군기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이다. 미군에 의해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7-361-AL0001).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HK교수 일본근현대문화

‘Highway No.1’으로 지정된 이 도로는 구니가미촌(国頭村)부터 나하에 이르는 구간을 미군이 관리하고 정비하고 있었다. 나하 군항, 후텐마(普天間) 기지, 가테나(嘉手納) 기지 등 주요 군사 시설과 인접하고 있었기에 이 도로는 비상 시에 활주로로도 이용 가능하도록 건설되기도 했다. 오키나와에서 유일하게 일부 구간의 한쪽 차선이 3차선(왕복 6차선)인 것도 바로 이 때문인 것이다. 1972년 5월 15일 오키나와 반환과 함께 ‘Highway No.1’은 ‘국도’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지만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는 ‘1호선’으로 불리는 일이 많았다. 이는 미국이 만든 관습에 오키나와 사람들이 얼마나 깊이 젖어 있었는지를 시사하는 바이기도 하다.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미하마(美浜) 아메리칸 빌리지(American Village) 역시 국도 58호를 사이에 두고 제시되는 상반된 ‘미국’ 이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본문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아메리칸 빌리지는 1981년 해안가에 있던 미군 비행장 및 사격장이 반환되면서 그 일대에 매립지를 조성하여 만든 도심형 리조트 시설이다. 미국 샌디에이고에 있는 씨 포트 빌리지를 모델로 삼았다고 하는 이 위락 시설은 미군기지의 활용 측면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자주 일컬어지지만, 국도 58호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미군기지 캠프 구와에(キャンプ桑江)와는 전혀 다른 미국을 제시하며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풍경은 미국에 대한 부정적/긍정적 시선이 반복적으로 교차하고 또 미국 문화에 대한 매혹과 거부가 양가적으로 존재함을 현시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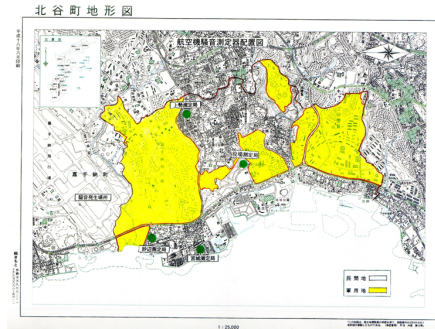
문화적 양극성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은 결코 ‘문화 진공’ 상태로 남겨지는 법이 없으며, 역설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다양한 문화 요소들이 교차되고, 모방

1) 사진작가 구리하라 다쓰오(栗原達男)는 전후 60년과 오키나와 반환 33년을 맞이한 2005년에 국도 58호를 따라가며 그 풍경을 사진과 글로 묘사한 바 있다. 그는 차탄초에 대해 “국도 58호선의 경관은 1972년 복귀 이전에 비해 격변했다. 특히 차탄 주변의 변화는 두드러진다. 광대한 매립지는 미국의 리조트와 같고 거대하게 들어선 관람차와 마켓, 레스토랑이 즐비하며 원색의 색감이 넘쳐난다. 이와 같은 ‘이경(異境)’을 통과하면 또 다른 ‘이경’ 가테나 기지가 펼쳐지는데 이는 복귀 이전과 다르지 않다. 이 광대한 미공군기지는 오키나와시, 차탄초, 가테나초 등, 세 지역에 걸쳐있다. 미군 당국은 현재 사용 중인 항공기의 모든 기종과 앞으로 사용할 모든 기종이 발착 가능한 ‘불침공모(不沈空母)’라고 호언하고 있다고 한다.”고 이야기하였다.(栗原達男(2005) 『沖繩・国道58合線 那覇から奥まで150km-北谷-嘉手納 基地のある街』 『中央公論』 vol.120, p.16.)

과 수용을 통한 문화의 축적 과정이 일어나는 역동적인 공간으로 정의될 수 있다.<sup>2)</sup> 어쩌면 국도 58호를 사이에 두고 양 편에 펼쳐진 상반된 오키나와(혹은 미국)란 타자의 모방과 수용, 충돌과 접합, 동의와 부정 등의 과정이 만들어 내는 문화적 대화의 대표적인 표상 공간인지도 모른다. 본고에서는 아메리칸 빌리지의 형성, 소비 과정을 검토하고 이들 공간에서 벌어지는 타자 미국에 대한 재현 양상과 오키나와 정체성의 발현 양상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오키나와 내에서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포스트식민주의적 현상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망해 볼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2. 상상된 미국

먼저 아메리칸 빌리지가 위치한 차탄쵸(北谷町)에 관해 개략적으로 설명해 두자.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차탄쵸는 전형적인 농촌으로 특히 쌀 산지로 잘 알려져 있었으나 전쟁으로 인하여 마을의 모습은 크게 변한다. 1945년 4월 미군이 이 지역에 상륙하면서 주민들은 주변 지역인 기노자손(宜野座村)과 긴쵸(金武町)로 피난 갈 수밖에 없었고 패전 후에도 이들은 차탄쵸로 돌아갈 수 없었다. 물론 1946년 10월경부터 서서히 거주 허가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고향으로 돌아 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사이에 이 지역에는 캠프 즈케란(キャンプ瑞慶覧/Camp Foster), 캠프 구와에(キャンプ桑江/Camp Lester), 가테나(嘉手納) 비행장, 육군 지



차탄쵸 지형도.  
군용지로 인하여 주거지가 크게 제한되었다.

2) 송정수(2014) 『포스트식민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러시아 문화의 이중적 정체성』 『러시아 연구』 제24권 제1호, pp.122-123.

유시설 등과 같은 미군기지 시설이 자리하면서 오키나와 사람들의 거주 지역은 기지 지형도에 크게 좌우되었다. 실제로 미군기지 시설은 국도 58호 선을 따라 평지에 조성되어 있고 차탄초의 면적 약 53.5%를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주민들의 거주 지역은 그만큼 제한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도 택지 및 시가지가 비교적 조건이 나쁜 장소에 조성되었다. 또한 미군의 가테나 비행장이 확장됨에 따라 주민들의 거주 지역은 차탄 지역과 가테나 지역으로 양분되어 교통이나 행정에 있어서도 불편과 폐해가 따르는 일이 많았다.

이러한 가운데 1981년 캠프 즈케란의 한 부분인 햄비 비행장(Hamby U.S. Army Air Field)과 메이모스카라 사격장이 반환되고, 이어서 1988년에 비행장 부지 북쪽에 인접한 해안을 새로이 매립하면서 이 지구에는 차탄 공원, 아메리칸 빌리지와 같은 공공시설 및 위락 시설이 들어서게 되었다.<sup>3)</sup> 이 같은 시설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반환 다음해인 1982년 차탄초가 실시한 주민 의견 수렴 조사에 따르면, 주민들은 반환지를 공원과 같은 녹색 광장(22.4%)이나 공립 병원(16.5%), 쇼핑센터(13.0%), 사회복지시설(11.7%), 교육문화시설(10.5%), 주택단지(9.6%) 등으로 이용하고자 했다. 또한 매립지에 관해서는 공공시설(37.9%)이나 레저시설(24.4%), 상업시설(21.3%) 등으로 사용하고자 했다.<sup>4)</sup> 결과적으로 기지 반환지는 주로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나 민간에 의한 개발 사업 부지로 활용되었고, 도시 지구는 주택지 확보나 부족한 공공시설의 정비 등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었다.

군용지 반환 과정에는 여러 가지 제약과 변수가 작용하였다. 군용지 자체가 사유지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권자의 합의를 이끌어 내거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과 절차가 소요되었던 것이다.<sup>5)</sup> 여기에서 주목을 끄는 점은 주민이나 지자체가 지역 산업 및 상업의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반환지 활용을 검토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미군기지에 의해 오랫동안 지역 개발과 산업 진흥이 가로막혀 있었던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컨대 현재 아메리칸

3) 매립한 이후 이 지역은 약 49ha의 면적을 가지게 되었는데 주택용지, 공원용지 등으로 약 38ha의 면적이 책정되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리조트 용지로 약 13ha의 면적이 책정되었다.

4) 沖繩県北谷町(1982) 『北谷町町民意識調査』 沖繩県北谷町, p.35, p.59.

5) 沖繩県北谷町(2008) 『基地と北谷町』 沖繩県北谷町, p.145-146.

빌리지가 들어선 공간은 원래 주택난 해소를 위한 택지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매립지와 연계하여 보다 유용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던 가운데 아메리칸 빌리지가 조성되게 되었다.<sup>6)</sup> 다시 말하면 아메리칸 빌리지의 주된 목적은 차탄초의 산업 진흥과 주민들의 고용 기회 확대, 재원 확보 등에 있었던 것이다.<sup>7)</sup>

한편, 아메리칸 빌리지는 미군 시설이 집중되어 있던 차탄초의 지역성이 다른 형태의 지역성(미국성)으로 재현된 예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오키나와 주민들의 뜻에 따라 미군 비행장이 아메리칸 빌리지로 조성되는, 말하자면 장소 전용 현상(appropriation)이 일어난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군기지가 가지는 경험 혹은 기억이 아메리칸 빌리지라는 또 다른 미국의 표상으로 변용되는 과정이며, 두 번째는 오키나와 주민이라는 주체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미국(미국성)이 소환되어 아메리칸 빌리지가 차탄초의 랜드마크로 기능하게 된 점이다. 이 두 가지에 주목하는 이유는 아메리칸 빌리지에 내포되어 있거나 그곳이 발신하는 메시지가 오키나와에서의 미군, 미군기지가 가지는 통상적인 의미와는 구별되는 또 다른 층위의 논의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서 아메리칸 빌리지가 식민주의적 공간으로 재현되었다는 것은 미군기지라는 거대한 폭력 구조가 잔존하고 있는 오키나와에서 그것이 새로운 문화 해석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피식민자 스스로 식민자의 문화를 모방, 차용하여 문화 접변이나 문화 변용의 현상을 일으키는 예는 다른 국가나 지역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오키나와의 경우가 특별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바로 이 같은 점에 있는 것이다.

먼저 미군기지가 가지는 경험 혹은 기억이 아메리칸 빌리지라는 또 다른 미국의 표상으로 변용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자. 요시미 슌야는 20세기의 아메리카니즘을 ‘군사적, 정치경제적 헤게모니’와 ‘대중 소비문화로서의 미국적 생활양식’으로 구분하며 하나의 몸인 미국에 두 가지의 얼굴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sup>8)</sup> 이는 패전 후 미국의 점령 하에 놓여 있었던 일본 본토나

6) 沖縄県北谷町役場企画課(2003) 『返還駐留軍用地利用(北前・桑江地区)における経済効果の検証』 沖縄県北谷町, p.16.

7) 沖縄県北谷町役場企画課(2009) 『北谷町 町勢要覧2009 ニライの都市 北谷』 沖縄県北谷町, pp.21-22 참조.

오키나와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이 두 개의 얼굴을 가진 미국은 패전 일본과 오키나와에서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군림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여기에서 분명히 구분해야 할 점은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에서 이루어진 미국의 점령 정책이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간접 점령의 형식을 취했던 일본 본토에서는 비군사화와 민주화가 정책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는 이후에 경제부흥 정책으로 그 방점이 옮겨갔다. 이에 비해 오키나와에서는 미국이 직접 점령하는 형식을 취했고 또한 미군기지 확보와 안정적인 기지 사용 등이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 오키나와의 경제 정책 역시 미군기지에 좌우될 수밖에 없었다. 기지 건설에 투입된 막대한 자금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데에 오키나와의 경제 정책은 집중되어 있었고, 또한 기지 건설을 우선시한 탓에 생활 물자를 생산 공급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결국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가 배태되기도 했다. 말하자면 오키나와의 경제는 ‘기지 의존형 수입 경제’로 유도된 것이다.<sup>9)</sup>

오키나와는 1972년에 본토 복귀를 하게 되지만, 지금도 여전히 일본 내 미군기지의 약 75%가 오키나와에 집중되어 있다. 이 같은 현실은 오키나와가 일본과 미국의 폭력적인 군사적 패권 구조 내에 포획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사정은 오키나와와 미국의 다양한 조우를 낳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오키나와의 사회학자 야카비 오사무가 이미 지적했듯이 오키나와는 미군기지라는 압도적인 존재로 인한 구조적인 폭력이나 피해와 마주해 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혹은 미군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을 쌓아왔다. 그것은 때로는 타지에 대한 저항과 투쟁을 수반하기도 했고 때로는 유용과 변용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한 그것은 한편에서는 미군기지에 반대하여 복귀 운동을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을 개재한 미국 소비문화와 생활양식을 욕망하는, 두 개의 미국이 분리공존(分離共存)하는 양태를 낳기도 했다. 물론 역으로 기지 인근에서 미군을 대상으로 생업을 이어가는 이들이나 미군 기지로부터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은 뮤지션들은 분리공존의 모순과 균열, 비틀어짐 사이에 존재하기도 했다.<sup>10)</sup>

8) 吉見俊哉(2002) 「日本のなかの「アメリカ」について考える」, 『環』 8号, pp.131-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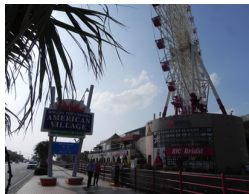
9) 牧野浩隆(1997) 『再考 沖縄経済』 沖縄タイムス社, pp.12-36.

10) 屋嘉比収(2002) 「越境する沖縄-アメリカニズムと文化変容」, 『岩波講座 近代日本の文

야카비 오사무가 다루는 시기는 주로 패전 직후부터 1960년대로 주된 목적은 미국에 의한 오키나와 문화의 변용 양상을 살피는 데 있지만, 그의 지적은 반환된 미군기지 자리에 또 다른 미국의 기호인 아메리칸 빌리지가 조성된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다. 미군에게 점유 당했던 토지를 되찾는다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을 다시 확보하였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다소 시기는 거슬러 올라가지만 1950년대 후반 미국에 의한 오키나와 토지 강탈로 인해 오키나와 섬 전체에 민중 운동이 고양된 것에서도 보듯이,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기지 반환 문제가 뜨거운 쟁점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군기지를 둘러싼 논의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오키나와의 지역 정체성을 사유하는 데에 근본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일 것이다.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지만 토지는 인간이 뿌리를 내리는 중심적 공간을 제공하며 토지의 상실은 자기 준거의 상실, 정체성의 상실로 연결된다. 토지가 보장하는 영속성이나 지속성이 타자에 의해 침해당하고 박탈당했을 때 거센 항변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인 것이다. 미국에 의해 강제적으로 고향을 상실하게 된 사람들에게 어렵사리 다시 고향이 주어졌을 때 이들이 그 공간을 또 다른 미국으로 메우고자 했다는 사실은 야카비 오사무가 지적한 두 개의 미국이 분리공존하는 양식을 그대로 대변하는 예에 다름 아니다. 즉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폭력적인 미국을 고발하면서도 동시에 일상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을 욕망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역시 심리적으로 두 미국이 분리공존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국도 58호선을 사이에 두고  
미군 기지와 아메리칸  
빌리지가 마주보고 있다.



아메리칸 빌리지 입구



미군 기지 캠프 구와에  
(キャンプ桑江/Camp Lester)

한편, 아메리칸 빌리지의 구상이나 계획을 살펴보면 미국이 이미 오키나와 다음을 설명하는 하나의 문화 요소로 편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메리칸 빌리지의 테마는 오키나와현 사람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쉴 수 있는 장소, 국제 감각이 풍부한 교류 장소 창출에 있습니다.

오키나와현 사람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쉴 수 있는 장소란 기본적으로 미국을 체험할 수 있는 도시형 위락 시설을 말합니다.

또한 국제 감각이 풍부한 교류 장소 창출이란 지금까지의 오키나와의 역사적 경위, 중부 지구의 특성, 차탄초의 지리적 우위성 등을 고려하여 국제 감각을 살리는 장소를 말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을 키워드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오키나와현 내의 젊은이들 및 관광객들에게도 큰 흥미를 불러일으키리라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일본 국내에서는 특정 국가를 테마로 한 여러 리조트가 조성되었습니다만, 미국을 테마로 삼은 시설은 없었습니다. 미국은 각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스포츠를 비롯하여 패션에 있어서도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인기가 높습니다. 레저 면에서도 최적의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보아도 독창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메리칸 빌리지를 비롯한 미하마 리조트 지구는 오키나와가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그리고 미국을 연결하는 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서 힌트를 얻어 조성된 곳입니다.

‘미국을 더욱 알아가자’, ‘미국을 더욱 즐기자’, 그리고 ‘쉽고 저렴한 즐길 거리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타운 리조트를 만들자’, 하는 것이 개발 콘셉트인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 문화, 패션 등 각종 정보의 집적지이자 발신지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밑줄은 인용자, 이하 동일)<sup>11)</sup>

오키나와는 류큐왕국 시대, 사쓰마 침공, 미국 통치 시대 등의 역사 속에서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해 왔습니다. 특히 오키나와 중부 지방은 미군기지라는 존재로 인해 오키나와 문화와 미국 문화가 혼재하고 융합하는 독특한 문화와 지역성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문화와 융합된 독자적인 문화를 살려 특색 있는 리조트를 개발하고자 검토하였습니다.<sup>12)</sup>

11) 仲地勲(2001)『美浜アメリカンビレッジ』、『建設情報誌』NO.16, p.13. 참고로 저자는 당시 北谷町役場 기획과 과장이었다.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차탄 초나 오키나와에서 미국 문화를 체험한다는 것은 더 이상 낯선 경험이 아니다. 그것은 ‘편안하고 즐겁게 설 수 있는’ 안락하고 익숙한 행위이다. 오키나와 문화와 대립각을 세우지도 않고 또 강제적으로 미국 문화에 동화시키지도 않는 미국 문화는 오키나와에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닌 것이다. 오히려 양자는 ‘혼재하고 융합하는 독특한 문화와 지역성’을 생산시켰다. 또한 오키나와는 ‘각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선진 문화를 경우함으로써 지배적 제국 문화 속에 편입되어 자신들의 ‘독자’적인 문화를 재발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려 한다.

특히 아메리칸 빌리지가 다른 누구도 아닌 오키나와현 사람들을 위한 위락 시설로 개발되었다는 점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아메리칸 빌리지가 타자 미국에 대한 오키나와의 욕망을 대변하는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이다. 미군기지 반환지에 아메리칸 빌리지가 조성된 이유 가운데 하나로는 오키나와현 사람들을 위한 위락 시설의 부족을 꼽을 수 있다. 기존의 리조트 시설은 오키나와현 외에서 온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비용도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다. 오키나와 본섬 중부에 위치한 차탄초는 오키나와시나 기노완시와 인접해 있으며 나하시와도 비교적 가깝고, 무엇보다 국도 58호가 통과하는 지점에 자리하고 있어 오키나와현 사람들이 접근하기에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에<sup>12)</sup> 아메리칸 빌리지를 만들 수 있었다. 이처럼 오키나와현 사람들을 주요 방문객으로 상정한 아메리칸 빌리지는 오키나와 스스로 철저하게 ‘미국’을 연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오키나와에 ‘미국’이 토착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다시 말해 미국에 의한 점령 경험이라는 것이



『町勢要覧』(2009)에 소개된 아메리칸 빌리지

12) 北谷町役場総務部企画課(2004) 『美浜タウンリゾート・アメリカンビレッジ完成報告書』 沖縄県北谷町, p.11.

13) 北谷町役場総務部企画課(2004) 앞의 책 pp.10-11.

단지 토지나 경관, 제도의 지배에 그치지 않고 피점령 지역의 문화적, 사상적, 심상적 영역에 침투하여 끊임없이 접합 반응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메리칸 빌리지에서 재현되는 미국은 더 이상 오키나와의 동질성을 저해하거나 오키나와 내부의 질서를 해치는 잠재적인 위협 요소가 아니라 오키나와다움을 표현하는 구성소로 포섭되어 그것이 또 다른 오키나와다움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인문지리학자인 조앤 샤프는 글로벌화에 대한 로컬의 대응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전략으로 정리하였다. 첫째는 글로벌 문화와 동질화의 위험은 로컬 문화의 재생과 전통의 발명 및 재성립으로 이어진다. 즉 로컬 문화들은 의식적으로 자기 문화를 관리 혹은 방어하는 것이다. 이는 문화적 가치에 대한 논쟁과 서구적 규범의 보편화에 대한 비평으로 효과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둘째는 흔히 혼성성의 견지에서 논의되는 문화적 절충주의와 크레올화를 찬양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는 것이다.<sup>14)</sup>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오키나와의 아메리칸 빌리지의 경우는 오키나와와 미국이 ‘혼재’하고 ‘융합’한 이른바 문화적 절충주의에 의한 혼성성의 대표 기호라 보아도 무방하다. 앞의 두 인용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화적 절충을 미국과 오키나와의 평온한 어울림처럼 ‘찬양’하고 있었으며 아메리칸 빌리지가 그것을 가시화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도 58호를 사이에 두고 아메리칸빌리지 건너편의 미군기지에서 평온과 함께 전투기가 지나갈 때면 아메리칸 빌리지가 과연 ‘편안하고 즐겁게 설 수 있는 장소, 국제 감각이 풍부한 교류의 장소’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오키나와와 미국 사이의 불협화음을 아메리칸 빌리지라는 또 다른 미국으로 해소하려는 이 같은 서사는 오키나와의 미국에 대한 욕망은 물론이고 미국에 대한 순응이 가져오는 불편함이나 위험을 더욱 부각시키기 때문이다. 미국 서해안 샌디에이고에 있는 씨 포트 빌리지를 모방하여 진짜보다 진짜 같은 미국으로 연출한 아메리칸 빌리지만 어쩌면 미국 서해안에서 확인할 수 없는, 아니 존재조차하지 않는 상상의 공간인지도 모른다.<sup>15)</sup>

14) 조앤 샤프 지음, 이영민·박경환 옮김(2011) 『포스트식민주의의 지리』 여이연, p.174.

15)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실재를 모사한 이미지 아메리칸 빌리지는 모방물이 아니라 원본을 갖지 않는 자립적 이미지이며 실재보다 더 실재 같은 초실재(hyperreality)의

뿐만 아니라 ‘미국을 더욱 알아가자’, ‘미국을 더욱 즐기자’라는 아메리칸 빌리지의 모토는 국도 58호 저편을 인지하지 않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오키나와가 주장하는 아메리칸 빌리지의 ‘혼재’와 ‘융합’이 공허한 수사처럼 느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기노자 아야노는 군사력과 관광 산업의 상호 의존성에 대해 규명한 Teresia Teaiwa의 조어 ‘밀리투어리즘(militourism)’<sup>16)</sup>를 빌려, 미군이라는 군사력을 짊어진 오키나와가 이로 인해 관광 산업의 성장을 보호, 보장받고 있다며 그 예로 아메리칸 빌리지를 거론한 바 있다.<sup>16)</sup> 오키나와의 관광 시스템이 미군이라는 남성적 폭력을 은폐하는데 원용되고 있다는 이 지적을 참고하면, 아메리칸 빌리지가 이상화된 경관의 미국화를 통해 군사 폭력을 중립적이고 불투명하게 만들어버리는 데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있다는 점은 역시 부정할 수 없다.



아메리칸 빌리지 풍경

전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시물라시옹은 더 이상 영토 그리고 이미지나 기호가 지시하는 대상 또는 어떤 실체의 시물라시옹이 아니다. 오늘날의 시물라시옹은 원본도 사실성도 없는 실재, 즉 파생실재를 모델들을 가지고 산출하는 작업이다. 영토는 더 이상 지도를 선행하거나, 지도가 소멸된 이후까지 존속하지 않는다. 이제는 지도가 영토에 선행하고-시물라크르들의 自轉-심지어 영토를 만들어낸다.”(장 보드리야르 지음, 하태환 옮김(2001) 『시물라시옹』 민음사, pp.12-13.)

- 16) Ayano Giniza(2007) “The American Village in OKinawa-Redefining Security in a “Militourist” Landscape”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社会科学ジャーナル)* 60 COE Special Edition, pp.140-141.

### 3. 기표와 기의의 분리

호미 바바와 같은 포스트식민주의 이론가들에 의해 이미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듯이 제국문화와 식민문화 사이에서 발생한 혼종성, 양면성, 불확실성, 제3의 공간 등은 그것이 불안정하고 고정되지 않은 만큼 저항의 가능성을 담지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sup>17)</sup> 우선 바바의 이론적 관심은 근대적 식민공간 내부의 혼종성, 특히 식민주의자와 피식민지인 사이의 담론적·무의식적 문화경제의 공간에 두어져 있다. 바바에게 이 공간은 지배와 저항이라는 물리적 힘이 부딪히는 대립적 공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지배와 저항의 대립이 끊임없이 미끄러지고 갈라지는 탈구와 이접의 담론적 공간에 가깝다. 특히 이런 이접과 탈구의 비동일성과 비동시성의 발생은 무의식적인 담론적 실천과 연결되어 있다. 바바는 푸코에 의지하여 식민주의자든 피식민지인이든 모든 주체는 식민공간의 의미화과정과 담론적 실천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 담론적 공간은 식민주의자든 피식민지인이든 그 누구도 동일성을 확보할 수 없는, 즉 ‘주체들의 구성적 비동일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공간은 식민주의자든 피식민지인이든 개별주체의 의식적 공간이 아니라 양자가 충돌하고 타협하며 서로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혼종적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 피식민지인에 대한 식민주의자의 지배는 일방적일 수 없다. 여기서 ‘문화적 차이’와 ‘타자성’이 출현하고 식민주의자의 재현적 위상과 그것에 근거하는 동질적이고 일방적인 권위가 불안해지며, 식민공간의 양의성과 혼종성, 흉내 내기, 제3의 공간 등과 같은 용어들은 모두 이 공간의 경계를 사고하기 위한 원리들이다.<sup>18)</sup>

그렇다면 과연 아메리칸 빌리지에 바바가 말하는 혼종성이나 양의성, 모방의 심급을 적용시킬 수 있을까. 다시 말해 오키나와에 의한 ‘미국 따라 하기’란 그 정형과 일치하지 않으며 동일화되지도 않는, 심지어 동일시를 욕망하는 순간에도 미끄러짐과 초과, 차이를 생산하며 전복적인 위협의 효과와 저항의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 주지하다시피 많은 이론가들에게 있어서

17) 호미 바바 지음, 나병철 옮김(2012) 『문화의 위치(수정판)』 소명출판, pp.195-211.

18) 김용규(2013) 『혼종문화론』 소명출판, pp.328-329.

혼종성 혹은 양의성은 포스트식민주의를 대표하는 아이콘이 되어왔다. 그러나 혼종성은 양면성과 불순성을 축하함으로써 식민주의적 논리에 근본적으로 도전하지만, 캐서린 미첼이 ‘혼종성의 과대 선전(hype of hybridity)’이라고 지적한 것처럼 혼종성을 무비판적으로 경축하며 대안적 가치로 삼는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sup>19)</sup> 또한 테리 이글턴이나 아리프 딜릭 등 다수의 학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바바의 혼종성과 양의성은 담론이나 의식적인 차원에 방점을 두고 있어 그 너머에 존재하는 제도나 정치적 층위에서의 실천, 혹은 경제나 자본의 전지구화에 관한 논의 등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논의를 염두에 둘 때, 아메리칸 빌리지가 발신하는 ‘혼재’와 ‘융합’에 대해 곧장 축하하기란 쉽지 않다. 다시 말해 오키나와가 연출한 아메리칸 빌리지의 혼종성은 미국과 오키나와 사이의 질서를 전복하거나 저항하는 전술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문화와 자본이 공모한 현실적 과제의 수행이라고 보는 편이 적절한지도 모른다.

미하마 타운 리조트·아메리칸 빌리지의 실현은 차탄초 주민들이 오랫동안 바라온 꿈의 실현이며, 이는 앞으로의 차탄초의 산업 진흥 및 군용지 활용에도 커다란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어 마을 활성화를 추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탄초의 역할은 해당 사업구역 내의 인프라를 정비하고 사업에 관여하는 기업의 운영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주민들이나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국도에서 진입하는 차선의 확장, 수경 시설, 공공 주차장(1,500대 수용, 유지정비는 입점 기업으로부터 분담금 징수)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들 공공 인프라는 1996년도 새 고향 만들기 사업에 의해 실시된 것으로 2001년에 완료되었습니다.(중략)

아메리칸 빌리지를 구상할 때 가장 큰 목적으로 둔 것은 차탄초의 산업 진흥, 일자리 확보, 재정 기반 확립이며, 이 같은 초기 목적을 달성하여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에도 부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메리칸 빌리지는 물론이고 그와 관련된 정비 계획으로 만들어지는 도시 기반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켜나가느냐가 중요합니

19) 조앤 샤프 지음, 이영민·박경환 옮김(2011) 앞의 책, p.211.

다. (중략) 또한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사업 목적을 충분히 인식하고 사업 콘셉트를 준수하여 지속적으로 운영에 참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중략)

이처럼 해당 미군기지 반환 예정 지역은 차탄초의 핵심이 될 중요한 거점이며, 반환 이후의 기지 활용에 따라 ① 풍요롭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의 창출, ② 도시 성장을 이끌 기반 정비, ③ 모두가 만드는 활력 있는 도시 만들기과 정비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꿈’과 ‘가능성’을 구현하기 위해 차탄초가 하나가 되어 노력하고 본래의 목적인 ‘기지 없는 평화로운 오키나와’를 창조하고자 합니다.<sup>20)</sup>

생활 주체들이 자신들의 삶의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형상화시키느냐에 따라 그 공간은 차별적인 의미를 만들어내어 특유의 장소성과 문화를 창출하게 된다. 차탄초의 경우에는 미군기지 반환이라는 상징적인 사건을 겪은 뒤 같은 공간에 또 다른 미국을 소환했다. 그러나 어쩌면 그때 호출된 미국이란 또 다른 오키나와인지도 모른다. 앞의 장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떤 부분에서 오키나와와 미국은 더 이상 이항대립적인 구도로 설명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양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간섭하여 서로에게 불가결한 문화 구성소가 되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다. 미군기지 반환자리가 또 다른 미국으로 점철되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것이 가장 오키나와 답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아메리칸 빌리지는 오키나와 사람을 위한, 오키나와 사람에 의한 오키나와다움의 창출이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오키나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의 기준을 충족시킨 다음에 비로소 허용된 또 하나의 오키나와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차탄초의 인프라 정비와 확충, 고용 기회의 확대, 지방 재원의 확보 등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사업의 목적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게 귀결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sup>21)</sup> 때문에 아메리칸 빌리지는 철저하게 미국을 재현할 수밖에 없었다. 미학적 차별성을 통한 시각적 효과의 극대화는 방문객 유치와 경제적 효과로 이어지고 이는 고용 기회의 확대와 지방 재원의

20) 照屋一博(2002) 『シリーズまちづくり(96) 沖縄県中頭郡北谷町 美浜タウンリゾートアメリカンビレッジ-西海岸地区のロケーションを活かしたまちづくり』 『住民行政の窓』(206) 日本加除出版, pp.32-39.

21) 실제로 아메리칸 빌리지가 완성된 이후 매출과 고용은 각각 138.8%, 161.5%로 신장된 바 있다. 北谷町役場総務部企画課(2004) 앞의 책, p.26.

확보와도 연동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살펴 볼 때, 아메리칸 빌리지에는 어떠한 미국도 개입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그것이 가지는 혼종성이나 양의성, 모방성은 식민지배자와 피지배자, 제국의 문화와 식민의 문화 사이에서 어떠한 긴장 관계도 형성시키지 않는다. 물론 아메리칸 빌리지 그 자체는 오키나와와 미국의 문화적 충돌과 접합, 부정과 동의와 같은 일련의 문화적 대화를 연상시키지만 그것이 가지는 현실적인 의미는 금융 자본이나 편의 시설, 복지 제도가 주도하는 지역 재생에 다름 아닌 것이다. 지역 경제나 주거 생활, 여가 활동, 환경 미화, 공간 정비 등과 같은 말로 아메리칸 빌리지를 설명할 수 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면 여기에 혼종성의 저항이 투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다시 말해 아메리칸 빌리지에는 미국을 흉내 내는 것으로 미국의 권위를 위협하거나 견고한 질서를 뒤흔드는 전복성이 내포되어 있지 않는 것이다. 앞의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메리칸 빌리지를 구상할 때 가장 큰 목적으로 둔 것은 차탄초의 산업 진흥, 일자리 확보, 재정 기반 확립”이었다. 장소 마케팅이 지역 이미지의 향상이나 장소 차별화 전략을 통한 지방 정부의 경제력 향상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듯이, 아메리칸 빌리지 건설 역시 지역 내부로의 자본 투자와 고용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사업의 일환이었음은 분명하다. 때문에 아메리칸 빌리지의 장소 마케팅과 ‘기지 없는 평화로운 오키나와’ 창조를 연동시킨 인용문의 마지막 부분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물론 아메리칸 빌리지를 통한 일자리 확보나 재정 기반의 확립이 차탄초의 기지 의존형 경제 구도에 어떠한 변화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예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지 문제에는 정치나 군사, 외교, 국제 관계 등 많은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에 아메리칸 빌리지가 ‘기지 없는 평화로운 오키나와’를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 아메리칸 빌리지를 통해 ‘기지 없는 평화로운 오키나와’를 만들고자 한다는 발화 지점만 두고 본다면 아메리칸 빌리지의 혼종성에는 의식적이고 고의적인 저항의 근거를 찾을 수도 있으나, 거기에 내재된 모방 행위는 피지배자의 문화 자체에서 주도하는 물질적이고 ‘공적인’ 형태의 정치적 행위를 위한 전략적 프로그램 개발로 이어지지 않는다.<sup>22)</sup>

미국의 어떠한 곳보다 미국과 같은 곳으로 재현된 아메리칸 빌리지에는

미국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곳은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소비생활을 지지해주는 공간이며 어떠한 갈등도 없고 충족되지 않은 욕구도 없다. 그리고 일상적인 것들도 아주 특별하게 존재하게 만드는 한없이 풍요로운 유토피아적인 공간이다.<sup>23)</sup> 아메리칸 빌리지 내에 자리한 대형 관람차나 영화관, 의류 매장, 가구점, 문구점, 잡화점, 마트, 레스토랑 등은 굳이 미국, 아메리카, 아메리칸을 모방하거나 경유하지 않아도 충분히 성립 가능하고 소비 가능한 장소이다. 그럼에도 굳이 그곳을 아메리칸 빌리지라고 명명한 이유는 아메리카가 오키나와에 토착화된 미국이자 또 하나의 오키나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의 아메리카는 도구적 합리성에 근거한 시장적 가치의 극대화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욕망을 자아낼 모사를 끊임없이 생산하는 공간인 대중 문화는 현대 자본주의의 총아이기도 하고 현대 자본주의를 버려 주는 포스트모더니즘적 문화 양식의 근원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sup>24)</sup> 아메리칸 빌리지에서의 ‘아메리카’, ‘아메리칸’이란 기존에 그것이 가지던 기의를 탈락시키고 끊임없이 새로운 기의를 배태시키며 새로운 기의와 기표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sup>25)</sup>

22) 바트 무어-길버트 지음, 이경원 옮김(2001) 『탈식민주의! 저항에서 유희로』 한길사, p.309.

23) 도시스펙터클의 형성과 이미지·스타일의 문화정치에 관해서는 이무용(2005) 『공간의 문화정치학』 논형, pp.174-175 참조.

24) 원용진(2010) 『새로 쓴 대중 문화의 패러다임』 한나래, p.438.

25) 아파두라이는 식민지였던 곳에서의 탈식민화는 식민지적 관습과 삶의 방식들을 단순히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 과거와 대화하는 것으로 존재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영국이 식민 지배하던 시기에 인도에 전래되었던 크리켓이 이후에 인도 사회에 미쳤던 영향과 의미, 기능, 매체의 역할 등을 분석하면서 기표와 기의가 분리되어 새로운 기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세밀하게 논증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 소재로 삼은 아메리칸 빌리지도 이와 유사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아르준 아파두라이 지음, 차원현·채호석·배개화 옮김(2004) 『고삐 풀린 현대성』 현실문화연구, pp.157-199.)



#### 4. 또 다른 아메리칸 빌리지 -오시로 다쓰히로『카테일·파티』

오키나와 나카구스쿠촌(中城村) 출신인 작가 오시로 다쓰히로(大城立裕, 1925.9.19.~)는 1967년에 소설 『카테일·파티(カクテル・パーティー)』로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하면서 오키나와 최초의 아쿠타가와상 작가가 되었다. 이 작품은 ‘파티’라는 교류와 친선의 장에서 결코 화합할 수 없는 점령자 미국과 피점령자 오키나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으며, 동시에 과거의 일본이 점령자의 입장에서 중국에서 행한 가해성도 폭로하고 있다. 작품의 도입부에는 주인공 ‘나’가 미국인 밀러의 초대로 미군기지로 들어가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다소 길지만 아래에 인용해 두고자 한다.

수위에게 미스터 밀러의 이름과 집 호수를 말하자 일단 전화로 확인한 다음, 현관에서부터 코스를 가르쳐 주었다. <그냥 가도 아무 일 없겠습니까?> 내가 다시 물었다. <아무 일 없습니다.> 수위는 무표정하게 말했다. (중략)

현관을 들어가자, 깨끗하게 포장된 도로가 양쪽으로 갈라져, 집들이 늘어선 안쪽까지 이어져 있었다. 끝 쪽에서는 다시 여러 갈래로 갈라져 ‘기지주택’, 혹은 오키나와 주민들이 부르는 식으로 말하면 ‘가족부대’라고 불리는 집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직선이 아닌 구불구불한 이 곡선 도로 때문에 십년 전에 곤혹을 치른 적이 있다. 그 때도 오늘처럼 찌는 듯 더운 오후였다. (중략) 당시에 나는, 이 ‘가족부대’ 가운데를 가로 질러 동쪽으로 빠져나가 보려 했었다. 이 마당의 동쪽 끝은 R은행의 S지점에 연결되어 있을 터였다. 나는 소년 시절부터 모르는 길의 방향만 정해두고 돌아다니는 묘한 취미를 갖고 있었다. 말하자면, 소소한 탐험취미다. 나는 현관을 미끄러지듯이 걸어 나갔다. 그러나 오산임을 눈치 챈 것은 대충 20분 정도 걸었을 때였을까. 내 계산으로는 대강 직선으로 가로지르면 15분, 어슬렁어슬렁 구경하며 걸어도 20분이라고 어렵짐작했는데 30분정도 걸어도 동쪽 끝의 철망 같은 것은 보이지도 않았다. 나는 같은 길을 빙빙 돌고 있었던 것이다. 집들은 하나같이 같은 모양을 하고 있고, 어찌다 화단의 모습이 다르거나 할 뿐이었다. 빨래 색깔이나 모양을 보고 같은 장소에 되돌아온 것을 알아챘다. 외국인들과 메이드(가정부)들은 나를 보고서도 무표정했지만, 길을 잃었을 때 갑자기 공포가 밀려왔다. 여기도 역시 내가 살고 있는 도시의 한 부분이라고

의식을 다잡아 보려 했지만, 어떤 것도 무리였다. 어떤 메이드를 붙잡고 길을 물었다. 메이드는 무표정하게 가르쳐 주었다. 그 침착한 모습은 그녀가 나와는 아주 먼 곳에 있는 저쪽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지게 했다. 결국 동쪽 끝의 뒷문으로 겨우 빠져 나왔다.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그 일을 말하자, 군대를 상대하는 어떤 세탁회사에서 일했던 적이 있는 아내는 놀라서 말했다.

<우리 회사 사람이 주문받으러 가서 도둑으로 몰려 헌병한테 넘겨진 일이 있었어요. 출입증을 갖고 있었는데도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벌써 10년이 지났다. 그때 이후, 혼자 걷는 내 즐거움도 다소 줄었다. 특히 기지주변에서는 조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나마 독신이라면 기분도 홀가분할 것이다. 아내는 <아이들 생각도 해야죠>라고 말했다. 조심하는 게 최선이다. 전전(戰前)이라면, 오키나와 안에서 아무리 외진 곳에 간다고 해도 무사했지만,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하우스에서 일하는 메이드들은 어떨까? 수위들은 라이플을 가지고 있으니까 두렵지 않은 걸까. 외국 아이들이 버스 창으로 돌을 던진다든지, 공기총을 명중시킨다든지, 그런 일이 때때로 신문에 실린다. 그런 아이들은 길거리에서 맨손으로 오키나와인들 사이를 돌아다닐 때 공포를 느끼는 일은 없을까? 혹은 있는 걸까? 또, 이를테면 우리 집 뒷방을 빌려 애인을 살게 했던 로버트 해리스라는 병사는, 일주일에 이틀 정도 머물다 갔는데, 오키나와 사람만 있는 마을에서 공포를 느낀 경험이 한 순간이라도 있었을까?

그래도, 오늘은 기분이 좋다. 미스터 밀러의 파티에 초대받은 것이다.<sup>26)</sup>

미군의 정보기관에서 일하지만 그 신분을 감추고 있는 미스터 밀러는 자신도 참여하고 있는 중국어 회화그룹 회원들을 카테일파티에 초대한다. 여기에 참석하기 위해 미군기지로 향하던 ‘나’는 십년 전에 곤혹을 치른 경험을 떠올린다. 기지 주택 사이를 걷던 ‘나’는 호기심에 길을 가로지르려다가 마치 미로에 빠진 것처럼 같은 길을 맴돌게 된다. 전쟁 이전이라면 아무 탈도 없었겠지만 미군이 자리를 잡은 이후에는 경관이나 지형이 바뀌고 말았고 그곳을 배회하다가는 수상하게 여겨져 어떤 검문을 받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니까 ‘조심’하는 것만이 상책이다.

전쟁을 경계로 타자 미국에게 자신의 공간을 내어주고 그곳에 출입하는 것은 물론 접근조차 허락되지 않는다는 이 대비적인 감각은 매우 중요한 시사

26) 岡本恵徳・高橋敏夫編(2003)『沖繩文学選』勉誠出版, pp.88-89.

점이다. 독일의 철학자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는 영토와 인간 본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농부의 예를 든 바 있다. 농부가 자기 땅에 무단으로 들어올 때 그가 분노하는 이유는 이를테면 곡식이 짓밟혀 피해를 볼까 걱정돼서가 아니라 “그의” 공간을 침입한 데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남이 그의 공간에 들어오면 그는 자기 자신이 피해를 입고 모욕을 받았다고 느낀다. 국가가 영토 침해 상황에 맞닥뜨릴 때 불안을 느끼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그 자체로는 사소한 국경 침입이지만 이로 인해 국가의 명예가 공격당했다고 느끼는 것이다.<sup>27)</sup> 소설의 ‘나’의 경우에는 미군이 사소하게 침입한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부터 영원히 귀환할 수 없도록 배제당하고 말았다. 또 타자에 의해 생경하게 바뀐 풍경 속에서 압도적인 공포를 느낀 뒤에는 타자가 그 공간을 지배하고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한 사실로 받아들이며 저항하는 것도 포기해야 했다.

제한적으로 출입이 허락된 수위나 메이드 역시 ‘나’에게는 낯선 타자이다. 무표정한 이들의 얼굴은 ‘나’와는 아주 먼 곳에 있는 저쪽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지게 만드는 의사(疑似) 미국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저쪽’에 수용되어 안착한 사람들로 묘사되는 것은 아니다. 작품 속에는 밀러의 친구 모건의 딸이 유괴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실은 아이의 요구로 오키나와인 메이드가 그녀의 집으로 데리고 간 것이었다. 그러나 오키나와인 메이드는 주인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게 된다. 미국과 오키나와 사이에는 선의나 양해는 허락되지 않고 오로지 수직적인 지배 질서만이 존재할 뿐인 것이다. 이처럼 『카테일 · 파티』에서의 기지 주택의 공간이란 기존의 경험과 가치들을 와해시키고 ‘나’의 근거를 뒤흔드는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공간으로 전경화된다.<sup>28)</sup>

『카테일 · 파티』의 기지 주택과 아메리칸 빌리지가 재현하고 있는 공간 감

27)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지음, 이기숙 옮김(2011) 『인간과 공간』 에코리브르, p.378.

28) 카테일파티로부터 돌아 온 ‘나’는 당일에 ‘나’의 딸이 ‘나’의 집에 세 들어 살고 있는 일본인 여성의 애인 미군 로버트 해리스에게 해안가에서 강간당한 사실을 알게 된다. 더욱이 딸은 미군 로버트 해리스를 버랑 쪽으로 밀쳐 고의적으로 해를 입혔다며 상해죄로 고소당해 CID에 체포되기까지 했다. ‘나’는 밀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냉정히 거절당하고 만다. 이처럼 이 작품에서의 오키나와와 미국의 ‘친선’은 와해를 전제로 한 폭력으로 그려지고 있다.

각의 차이란 새삼 지적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국도 58호를 사이에 둔 두 개의 미국이란 이와 같은 대조적인 풍경에 다름 아니다. 뿌리박힘의 감정, 소속감, 내부에 있다는 느낌, 자기 장소에 있다는 느낌이 상실되고 불안과 공포가 엄습하는 미국이 있다면, 다른 한편에는 기술 문명과 자본이 만든 계량화되고 물신화된 미국이 있다. 이 두 개의 미국이 때로는 내적 긴장성을 유발시키며 경합하기도 하고 때로는 평화롭게 분리공존하면서 지금의 오키나와를 구성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은 기존의 오키나와와 미국의 구도에 내포되지 않고, 혹은 내포되기를 저항하면서 양자의 관계성을 다시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바이기도 하다.

## 5. 공간 재현과 재현 공간, 그 사이

르페브르는 공간 생산의 계기에 대해 공간적 실천<sup>29)</sup>, 공간 재현, 재현 공간으로 나누어 설명한 바 있다. 그 가운데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공간 재현과 재현 공간의 정의와 그 차이, 그리고 아메리칸 빌리지가 위치하는 지점은 어디인가 하는 부분이다. 르페브르에 따르면 공간 재현은 주어진 사회에서 지배적인 공간으로 도시 계획가나 기술 관료들, 과학성을 추구하는 학자들이 대상으로 삼는 인지적 공간이다. 공간 재현은 실용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며 효과적인 인식과 이데올로기가 각인된 공간의 직조 속에 편입되어 변화를 기대하게 한다. 이 경우에 공간 재현은 기념물적인 건축, 건물 등을 통해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며 공간 생산에 있어서도 특별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 재현 공간은 이미지와 상징을 통해 체험된 공간으로 주민들, 사용자들, 그리고 몇몇 예술가들, 철학자들의 공간으로 상상적인 것과 상징주의의 개입을 받으며 각 개인의 역사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때문에 재현 공간은 대부분의 경우 미학적인 방향을 결정하며 한동안 일련의 표현이나 상상적

29) 공간적 실천이란 지각된 공간으로 생산과 재생산, 특화된 장소, 상대적인 응집력을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사회적 훈련 각각이 필요로 하는 고유한 공간의 총체를 모두 아우르는 것이다. 앙리 르페브르 지음, 양영란 옮김(2011)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p.80.

인 차원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고갈되어버리는 유일무이한 상징적 작품만을 생산할 수 있을 뿐이다.<sup>30)</sup> 거칠게 정리하면 도시 계획가나 기술 관료들이 실제의 공간을 기획하고 설계하며 내용을 담는 것은 공간 재현이라 볼 수 있고, 개인적 체험이나 상상, 이미지 등을 통해 체득하여 유일무이한 의미를 생성하는 것을 재현 공간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

르페브르도 경계하고 있듯이 양자의 차이점은 때로는 불분명하기에 신중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이 같은 도식에 입각하여 아메리칸 빌리지를 대입해 보면 그것은 공간 재현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도시 계획가나 기술 관료들이 ‘아메리칸 빌리지’라는 공간적인 맥락과 직조 속에 재현시킨 미국은 그것을 단순히 상징적이거나 상상적인 차원에서 머무르게 만들지 않으며 실용적인 효과를 기대하게 만든다. 더욱이 그것은 공간 자체가 바로 소비되기를 바라는 목적 아래 ‘아메리카’라는 미학적인 차별성을 부각시키며 그것을 욕망하도록 부추긴다. 그러나 역시 분명한 사실은 아메리칸 빌리지 내에 재현 공간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카테일·파티』의 ‘나’의 경우처럼 육화되어 분리 불가능한 기억과 경험들, 혹은 언어화될 수 없는 이미지이지만 신체 내부를 지배하는 또 다른 차원의 표현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실제로 반환된 햄비 비행장을 상업 용지로 조성하기 이전에 주민들 혹은 지주들은 오키나와 전투로 인한 유골이 지하에 묻혀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유골 조사 및 발굴 작업을 요청하여 유골을 회수한 바 있었다.<sup>31)</sup> 이처럼 아메리칸 빌리지의 지층에는 개인의 삶을 둘러싼 많은 이야기와 기억들이 묻혀있고 지금도 그 의미는 새로이 생성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아메리칸 빌리지가 위치한 곳은 공간 재현과 재현 공간의 사이인지도 모른다. 물론 아메리칸 빌리지가 전자에 압도적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점은 새삼 지적할 필요도 없지만, 그곳이 오키나와의 혼종성과 융합성을 대변하고 ‘기지 없는 평화로운 오키나와’를 위한 실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공간 재현과 재현 공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거리감과 긴장감, 접촉과 단절의 국면들을 섬세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다. 국도 58호를 사이에 두고 두 개의 미국이 펼쳐져 있지만, 양자는 군사력과 자본력에 의해 위계화된 질서를 강요

30) 앙리 르페브르 지음, 양영란 옮김(2011) 앞의 책, pp.86-93.

31) 沖縄県北谷町役場企画課(2003) 앞의 책, p.15.

당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와 같은 질서를 균열시키고 내파시키는 힘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때, 오키나와의 혼종성은 비로소 ‘저항’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參考文獻>

- 김용규(2013) 『혼종문화론』 소명출판 pp.328-329.
- 바트 무어-길버트 지음, 이경원 옮김(2001) 『탈식민주의! 저항에서 유희로』 한길사 p.309.
- 송정수(2014) 『포스트식민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러시아 문화의 이중적 정체성』 『러시아 연구』 제24권 제1호 pp.122-123.
- 아르준 아파두라이 지음, 차원현·채호석·배개화 옮김(2004) 『고삐 풀린 현대성』 현실문화연구 pp.157-199.
- 앙리 르페브르 지음, 양영란 옮김(2011)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p.80.
-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지음, 이기숙 옮김(2011) 『인간과 공간』 에코리브르 p.378.
- 원용진(2010) 『새로 쓴 대중 문화의 패러다임』 한나래 p.438.
- 이무용(2005) 『공간의 문화정치학』 논형 pp.174-175.
- 장 보드리야르 지음, 하태환 옮김(2001) 『시뮬라시옹』 민음사 pp.12-13.
- 조앤 샤프 지음, 이영민·박경환 옮김(2011) 『포스트식민주의의 지리』 여이연 p.174.
- 호비 바바 지음, 나병철 옮김(2012) 『문화의 위치(수정판)』 소명출판 pp.195-211.
- 岡本恵徳・高橋敏夫編(2003) 『沖縄文学選』 勉誠出版 pp.88-89.
- 沖縄県北谷町(1982) 『北谷町町民意識調査』 沖縄県北谷町 p.35, p.59.
- \_\_\_\_\_ (2008) 『基地と北谷町』 沖縄県北谷町 p.145-146.
- 沖縄県北谷町役場企画課(2003) 『返還駐留軍用地利用(北前・桑江地区)における経済効果の検証』 沖縄県北谷町 p.15.
- \_\_\_\_\_ (2009) 『北谷町 町勢要覧2009 ニライの都市 北谷』 沖縄県北谷町 pp.21-22.
- 北谷町役場総務部企画課(2004) 『美浜タウンレポート・アメリカンビレッジ完成報告書』 沖縄県北谷町 p.11.
- 栗原達男(2005) 『沖縄・国道58合線 那覇から奥まで150km-北谷-嘉手納 基地のある街』 『中央公論』 vol.120 p.16
- 照屋一博(2002) 『シリーズまちづくり(96) 沖縄県中頭郡北谷町 美浜タウンレポート アメリカンビレッジ-西海岸地区のロケーションを活かしたまちづくり』 『住民行政の窓』(206) 日本加除出版 pp.32-39.
- 仲地勲(2001) 『美浜アメリカンビレッジ』 『建設情報誌しまたてい』 NO.16 p.13.
- 牧野浩隆(1997) 『再考 沖縄経済』 沖縄タイムス社 pp.12-36.

- 屋嘉比収(2002) 「越境する沖縄-アメリカニズムと文化変容」 『岩波講座 近代日本の文化史冷戦体制と資本の文化-1995年以降1』 岩波書店 pp.243-283.
- 吉見俊哉(2002) 「日本のなかの「アメリカ」について考える」, 『環』 8号 pp.131-143.
- Ayano Giniza(2007) “The American Village in Okinawa-Redefining Security in a “Militourist” Landscape”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社会科学ジャーナル)* 60 COE Special Edition pp.140-141.

접 수 일: 6월 30일

심사완료: 7월 25일

게재결정: 7월 29일

<Abstract>

### **Two Americas**

#### **-Politics of Representation Surrounding American Village in Okinaw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litics of representation surrounding American Village in Tyatan, Okinawa.

American Village is an urban resort constructed on the reclaimed land around the American airfield and shooting range on the seashore in 1981. This facility was built by modeling Seaport Village in San Diego, America, and is often considered as a successful case in the aspect of utilizing American military base. However, American Village and the American military base Camp Lester, which is on the opposite side, are suggesting conflicting America and keeping a tense relationship. This scenery shows the repeated negative/positive views of America and the existence of both temptation of and objection to the American culture. In other words, American Village and Camp Lester having Japan National Route 58 in the middle represent the space of imitation and acceptance of America, conflict and connection, and agreement and denial. What matters is that the space of 'Two Americas', American Village and Camp Lester, is being forced to follow the order of the hierarchy by military power and capital strength. In addition, how to imagine and practice the force to disrupt and break that order would be a huge task.

This study tried to examine the formation process of American Village and analyze the aspects of American reproduction and expression of the identity of Okinawa. It will provide the possibility to look at the phenomenon of post-colonialism working complexly in Okinawa from a new angle.